

신안군 '가시없는 꾸지뽕' 특화 육성

전남농기원과 신품종 '대풍' 공급계약 생산성 10배...내년부터 15만주 보급

신안군이 꾸지뽕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가시 없는 고품질 다수확 신품종 꾸지뽕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육성한 가시없는 고품질 다수확 꾸지뽕 '대풍' 통상실시권 계약을 최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체결했다.

통상실시권 계약기간은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7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250ha에 재배할 수 있는 15만주를 생산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가시없는 꾸지뽕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함에 따라 우량묘를 생산, 관내 희망농가에 201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농가에서 재배되어 온 꾸지뽕 나무는 가시가 많아 수확작업에 어려움이 많았고, 수컷나무가 많아 열매 수확이 어려웠다. 반면 '대풍'은 암나무를 생산 공급할 수 있으며 가시가 없어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신품종이다.

또한 잎이 크고 줄기가 잘 자라 수



확률이 많고, 열매는 성숙기가 빠르며 과중(果重)이 무겁고 당도가 높다. 꾸지뽕 열매 수량성은 10a당 1700kg을 넘고 있어 재래종에 비해 10배 이상 다수확인 것이 특징이다.

꾸지뽕은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특성상 도로서도 형성된 신안군의 고부가가치 특화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꾸지뽕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꾸지뽕 재배기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꾸지뽕 주산단지 육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신안군에는 13ha의 꾸지뽕이 재배되고 있으며, 앞으로 250ha까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우량묘목을 생산 공급해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품종 '대풍'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 2013년부터 희망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군 농업기술센터에 육묘장을 설치해 묘목을 재배 중에 있다"며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우리 폭염 물라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함평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19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부지 3,800㎡에 파도풀과 키즈풀, 아쿠아 플랫폼 등의 물놀이 시설과 함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 새얼굴

“대안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만들 것”

김정술 완도군의회의장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정을 요구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면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완도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정술(61) 의원은 “의회가 민의의 전달로서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를 적

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포함한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 농·수산·축산업, 문화관광, 지역 경제 등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군 정부공모사업 선정률 높인다

총괄 관리부서 운영...표창·인센티브 제공

해남군이 정부공모사업 추진을 총괄 관리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과소별 개별 추진보다는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각 공모사업별 공동 대응체계(TFT)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획홍보실을 총괄 관리부서로 지정하고 각 공모사업의 조정방침 및 여건 부합여부, 군비 매칭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또 공모사업 선정시 실과소 담당자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자 선

정, 군정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모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관광 활성화, 농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전체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관리와 체계적 추진으로 해남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정부공모사업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모두 19건에 78억2500만원의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평양민속공연 무더위 싸~악

14~18일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해남군이 한 여름밤 군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문화축제를 선보인다.

해남군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매일 밤 8시에 해남군민광장에서 '2012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는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난버벌 무도 퍼포먼스 공연, 가요콘서트, 영화상영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총 13작품에 202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함께 한다.

첫날인 14일 최선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15일에는 북한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16일에는 무도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이어서 17일에는 인기가수와 함께 하는 '한여름밤의 가요콘서

트'가 열리고 마지막날인 18일에는 최선영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우수공연단체 초청공연에 앞서 지역의 예술인과 동아리 회원들이 준비한 창작작품 공연이 서막을 장식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해남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인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물론 공연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휴가철에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낭만 넘치는 추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해경 경비정 부두

북항에 축조공사 완료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전용부두 축조공사가 지난 1일 완료됐다.

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시 북항 매립지 부지 2만2440㎡에 축조한 전용부두는 안벽 320m, 호안 265m, 선양장 50m 규모이다.

해경 부두는 목포해경 소속 3000t 급에서 30t까지 경비정 22척이 사용한다. 복지관, 헬기장 등 배후부지 시설물 공사가 끝나는 201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해경은 목포시가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삼학도 전용부두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일 목포해경 전용부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목포해경은 20여척의 경비정 함정을 보유하고 해상경비와 해상범죄 단속, 해상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민기자 dss6116@

전 북

대형마트 영업 규제 道 조례보완 나섰다

전북도는 조례를 보완,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추진한다.

이는 전주 지방법원이 지난 31일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지방법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부터 영업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도는 1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도내 7개 시·군에 조례 개정에 필요한 보완사항과 법원의 지적사항을 긴급 통보했다.

보완사항은 조례에 시장·군수의

재판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송 중인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를 살려 조례를 보완하고 법원의 지적사항을 준수하면 9월부터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이야기 들으며 걷는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이 탐방객들에게 둘레길 주변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남원시는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군산항 일대 7km 해일 방어벽 세운다

국토해양부 전국 25개 항만에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과 해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군산항 일대 저지대에 7km 길이의 방어벽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군산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 25곳에 2030년까지 1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해일 방제시설 사업 계획'을 추진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군산은 최근 33년간 연평균 1.76mm씩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1.36mm), 대흑산도(1.24mm), 안흥(1.08mm) 등보다도 해수면 상승 수치가 높은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거대 폭풍 및 해일이 발생하면 항만시설과 배후단지 등이 침수돼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일대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1000여 개에 달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500여억원을 들여 군산 내항~여객선터미널 구간 7km에 최저 1.5m에서 최대 2m 높이로 방어벽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어벽 설치에는 잦은 기후변화로 닥쳐올 거대 태풍과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수백 수천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일대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1000여 개에 달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부안군 해양스포츠 제전 준비 만전

부안군이 오는 10~13일 변산반도 격포항 일원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성공개회를 위해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김호수 군수는 지난 1일 웰레조회를 갖고 해양스포츠 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해 부안발전의 미래를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번 해양스포츠 제전은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로 공직자들이 출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훌륭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해양스포츠 산업과 관광산업 등 부안발전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군은 군수와 해양제전실무소위원회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1일 격포항과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해양스포츠 제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북도교육청 대입상담 콜센터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학·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입상담 콜센터(1600-1615)를 운영한다.

대입상담 콜센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무료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에게서 대입 진학·진로 상담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현재 고교 교사 20명이 상담에 응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체계적인 진학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립도서관 야간 문화프로그램

군산 시립도서관(관장 신재현)은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야간 문화프로그램은 'P.O.P 예쁜 글씨 배우기(초급)'와 '남인공예'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 1회 운영된다. 수강생 모집은 13~17일까지 군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P.O.P 예쁜 글씨 배우기'는 홍보용 광고 글씨 쓰기를 교육하며, '남인공예'는 컵받침 등을 만들어 창의적인 예술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문의(063-450-6575)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남원시는 10월 개관하는 노인복지관 위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 노인들의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할 남원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2861㎡(지하 1층·지상 3층)규모로 건강 증진실, 물리

치료실, 요가실 등 13개 시설을 갖췄다.

이환주 시장은 “노인복지관 개관을 계기로 노인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27개기업과 여성친화기업 협약

정읍시는 지난 31일 여성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솔티떡마을 등 27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했다.기업들은 여성이 현장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해 여성들

이 일하기 좋은 일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열린 2012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실시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수료식에서는 모두 93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

“농촌지역 의료봉사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우석대 봉사단 방문 격려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는 지난 1일 정읍시 동동·칠보·산내 지역에서 한방 무료 진료봉사 활동을 받고 있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찾아 격려했다.<사진>

김승범 의장은 3개 면에서 한방 무료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을 차례로 방문, “농촌인 구고령화로 중풍을 비롯해 치매,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석대 한의과대학 한방진료 봉사단은 지난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s@